

힘이란 실로 거대한 것이야!

그녀의 못자리 가까이로는 경비병들을 배치해, 뿔뿔이 난한 집안 딸들을 묘지로부터 떨어트려야만 했네. 이 세상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위안이 없으니, 남은 일은 유일한 은인이었던 분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으며,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래로 몸을 던지려고 했거든.

비르지니는 왕궁나무 성당 근처, 성당 서쪽 방면에 있는 대나무 숲 아래 묻혔다네. 자기 어머니와 마르그리트를 데리고 다같이 미사를 보러 오면, 그때까지는 오빠라 부르던 이의 옆에 앉아 휴식을 취하길 좋아했던 곳일세.

이날 장례식에서 돌아오자마자, 라 부르도네 씨가 그 많은 수행원 중 일부만 대동하고 이곳으로 올라왔네. 그는 라 투르 부인과 그녀의 벗에게, 자기 소관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원이라면 모두 해주겠다고 했네. 그는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, 격분에 가득 차서는 악독한 이모님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지. 그러더니 폴에게 다가가 그를 위로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빠짐없이 건넸네. 라 부르도네 씨가 폴에게 말하길,

“내 자네와 자네 가족의 행복을 바랐다네.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시지. 폴, 이 친구야, 자네가 프랑스로 가야만 하네. 그곳에서 자네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주겠네. 자네가 없는 동안에는 내가 자네 어머니를 내 어머니인양 돌보겠네.”